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3) : 551~563, 2015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6(3) : 551~563, 2015
<http://dx.doi.org/10.7856/kjcls.2015.26.3.551>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정서조절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우 희 정[†]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Emotional Control on Depression/Anxiety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Hee-Jung Woo[†]
Division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1)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anxiety and 2)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emotional control,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depression/anxiety. The sample included a total of 199 prim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3 to 6 who lived in the Gwangju or Chonnam regions of Korea.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anxiety and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control and social support. Second, social support from both peers and teacher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anxiety. Third, social support from peer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and that from teachers partially mediated these relationships. Th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rom peers and teachers may reduce depression/anxiety in multicultural children as a mediating variable.

Key words: acculturative stress, emotional control, depression/anxiety,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childre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15.

접수일: 2015년 6월 24일 심사일: 2015년 7월 14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30일

[†]Corresponding Author: Hee-Jung Woo Tel: 82-62-670-2360 E-mail: child@gwangj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아동기는 발달단계상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의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동기 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동기 이후 성인기까지도 그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어서 심각성이 크다고 한다(Mazza 2008). 또한 Kovacs et al.(198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와 청소년에 시작된 우울증은 성인기에 시작된 우울증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고 우울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다시 재발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바, 아동의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동기 우울이나 불안장애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러한 문제를 지닌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요즘은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의 단일민족적 사고를 가지고 아동에 대한 연구를 해 오던 생각에의 전환을 요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아동에 대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사항이 되었다. 국제 결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커져갔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 역시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2014년에는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전체 학생의 1%를 상회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에 걸쳐 전체 학생에 대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2010년 0.44%에서 2011년에는 0.55%, 2012년에는 0.70%, 2013년에는 0.85%, 2014년에는 1.07%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71.23%로 중,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아동기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환경적 영향을 받기 쉬운 특성 뿐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의 서로 다른 이중 문화라는 환경적 요소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지닌 문제들 중의 하나로 부모의 이중문화로 인해 겪게 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의 차이로 인해 성장과정 중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편견과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자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자아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Shin 2007; Park 2008). 더 나아가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우울, 불안, 소외감, 정체감 혼란, 신체화 증상 등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Park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Nho & Hong 2006), 낮을수록 전반적인 내재화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Choi 2009). Woo(2013)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위축, 우울/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가 모두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Kim(2011)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응과정스트레스와 차별경험스트레스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생활적응이 높아지고 문제행동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적응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요컨대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많고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불안, 우울,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정체감 혼란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아동이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며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외국인 어머니 나라의 문화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서 이중문화에 의한 차이, 편견과 무시, 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우울/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기는 새로운 학교생활의 시작과 또래 및 대인관계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유아기와는 다른 사회 정서적인 어려움이 부각되는 시기이다(Jeong & Chung 2007).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복합 정서에 대한 지식(Harris et al. 1987)과 정서표출 규칙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Saarni 1984). 이 시기에 발달하는 정서능력 중에서도 정서조절은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Cole et al. 1994)으로 이는 아동 개인의 심리 적응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 아동초기의 기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Grusec & Lytton 1988). 더욱이 이 시기는 아동들의 인지능력과 더불어 정서표현 및 정서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서조절 능력이 확장되고 안정화되는 정서조절 능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다(Scharfe 2000). 또한 정서조절이란 부정적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Salovey & Mayer 1997),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지닌 아동들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고자 할 때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oi 2010; Kook 2010).

아동의 정서조절 관련 연구로는 정서조절 능력과 우울은 부적상관이 있으며(Kim 2013),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들과(Kim 2003; Lee 2008),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이 높고(Lim 2002), 정서를 잘 조절하여 표현할 때 부정적 행동이 감소하며 긍정-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있다(Shin 2003). Barlow et al.(2004)은 우울장애와 같은 정서장애를 이해하는데 정서조절이 중요한 개념으로 우울장애의 치료를 위해 정서조절에 초점을 맞추어야함을 강조하였다.

Cole et al.(1994)도 정서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일시적 불안이나 우울,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과잉행동이나 행동억제 등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정서조절의 실패는 부정적인 정서가 해소되지 못하여 다양한 정신병리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Lee(2008) 역시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우울, 불안, 사회적 철회, 정신 신체적 증상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정서조절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해 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우울/불안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정서조절에 실패를 거듭하여 만성화되고 더욱 심각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서조절 능력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변인으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부모,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간다. 즉,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대상임을 인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적응하며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어간다. 사회적 지지란 삶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애정 및 관심의 정도으로써 보편적으로 가족이나 친구, 이웃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이나 원조를 의미하는데 그 지지가 누구로부터 제공된 것이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Dubow & Ullman 1989).

본 연구 대상인 학령기 아동들은 가정보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학교현장에서 친구와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측하며 사회적 지지원으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

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Lee 2010; Un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교사지지, 또래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밝히고 있다(Ko 2009; Seo 2009). 외국의 경우 역시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주효과를 보이며 또는 적응을 위한 조절기능을 지닌다고 보고하였고(Harker 2001), Willson & Hughes(2006)는 이주노동자 가정이나 소수민족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지지적 관계가 사회정서, 행동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학자들은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하고(Cassel 1976; Cobb 1976) 부적응이나 행동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Cohen & Wills 1985). Wethington & Kessler(1986)도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사건이나 우울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에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조절한다고 밝혔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Yang et al.(2012)은 다문화가정 초등 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지지를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또래지지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상호작용하여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아동이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수준이 증진되어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Kang(2009)은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 중 우울, 불안에는 부의 지지와 친구 지지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학교 적응능력에는 친구 지지와 교사지지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Lee(2010)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서조절과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없으나,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 우울을 각각 다룬 연구들을 살펴볼 때, Asher & Parker(1989)는 또래와의 친밀감은 정서조절을 도와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Meadows(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다수가 다문화가정아동의 학교적응이나 문제행동에 대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나 영향력을 다루어왔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영향변인을 살핀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더욱이 우울/불안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을 단편적으로 연구하여 그들과의 관계나 영향력을 밝힌 연구들은 있으나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아동의 우울/불안을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있어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이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인 교사와 또래의 지지가 어떠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중문화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로부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정서조절능력을 길러서 궁극적으로 우울/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우울/불안에 관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의 영향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적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를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로 구분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서조절, 사회적 지지, 우울/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정서조절과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중 임의로 표집 된 199명이며,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ject gender and grade (N=199)

Variables	Grade				Total	
	3th	4th	5th	6th		
Gender	Male	39	22	22	20	103
	Female	17	22	34	23	96
Total	56	44	56	43	199	

2. 측정도구

1) 우울/불안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Yin(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울/불안에 해당하는 7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s α)는 0.85이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Hong(2004)이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 Acculturative Stress)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s α)는 0.88이다.

3) 정서조절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서 Salovey & Mayer(1997)의 정서 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Moon(1996)이 개발한 정서지능 검사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 중에서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은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시키거나, 긍정적인 기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써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s α)는 0.94이다.

4) 사회적 지지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Han(199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 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지지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4, 또래지지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3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광주(12개)·전남(23개) 지역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아동 231명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에서 218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19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

출하였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서조절, 사회적 지지, 우울/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서조절, 사회적지지, 우울/불안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앞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선정된 각 변수단의 Pe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봄으로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알아보았으며 분석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우울/불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문화적응스트레스($r=0.58, p<0.01$), 정서조절($r=-0.33, p<0.01$), 친구지지($r=-0.59, p<0.01$), 교사지지($r=-0.48, p<0.01$)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낮을수록,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조절($r=-0.49, p<0.01$), 친구지지($r=-0.34, p<0.01$), 교사지지($r=-0.40, p<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지지($r=0.41, p<0.01$)와 교사지지($r=0.34, p<0.01$)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 지지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정서조절과 우울/불안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투입하여 매개변수로 가정한 사회적 지지(친구지지, 교사지지)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종속변수인 우울/불안에 회귀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친구지지, 교사지지)를 투입하여 우울/불안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emotional control,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anxiety(N=199)

	1	2	3	4	5
1	1.00				
2	-.49**	1.00			
3	-.34**	.42**	1.00		
4	-.40**	.42**	.60**	1.00	
5	.58**	-.33**	-.59**	-.48**	1.00

** p<.01

1) Acculturative stress, 2) Emotional control, 3) Peer support, 4) Teacher support, 5) Depression/anxiety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anxiety (N=199)

	Step	β	R ²	F
Peer support	1. Acculturative stress → Peer support	-.34***	.16	25.53***
	2. Acculturative stress → Depression/anxiety	.58***	.33	97.13***
	3. Acculturative stress → Depression/anxiety Peer support → Depression/anxiety	.43*** -.44***	.50	98.81***
Teacher support	1. Acculturative stress → Teacher support	-.40***	.16	36.34***
	2. Acculturative stress → Depression/anxiety	.58***	.33	97.13***
	3. Acculturative stress → Depression/anxiety Teacher support → Depression/anxiety	.46*** -.30***	.41	66.7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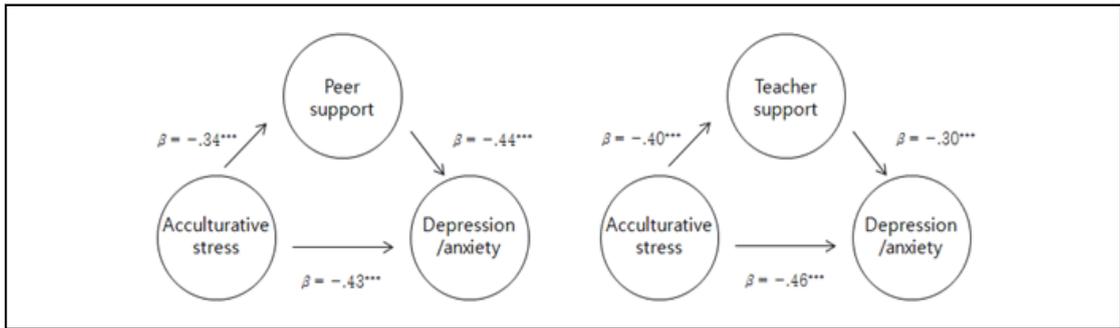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anxiety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불안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Table 3, Fig.1과 같다.

먼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불안 간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친구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34$, $p<0.001$).

둘째, 독립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58$, $p<0.001$).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친구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4$, $p<0.001$).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나 두 번째 방정식보다($\beta=0.58$, $p<0.001$)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어($\beta=0.43$, $p<0.001$) 친구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불안과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친구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Z값이 1.96보다 크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하였는데(Baron & Kenny 1986), 본 모형의 Z값은 4.44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불안 간의 교사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첫째, 독립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교사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0$, $p<0.001$).

둘째, 독립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control and depression/anxiety(N=199)

	Step	β	R ²	F
Peer support	1. Emotional control → Peer support	.42***	.18	42.10***
	2. Emotional control → Depression/anxiety	-.33***	.11	24.16***
	3. Emotional control → Depression/anxiety Peer support → Depression/anxiety	-.10 -.54***	.35	52.92***
Teacher support	1. Emotional control → Teacher support	.42***	.17	41.11***
	2. Emotional control → Depression/anxiety	-.33***	.11	24.16***
	3. Emotional control → Depression/anxiety Teacher support → Depression/anxiety	-.16* -.41***	.25	32.57***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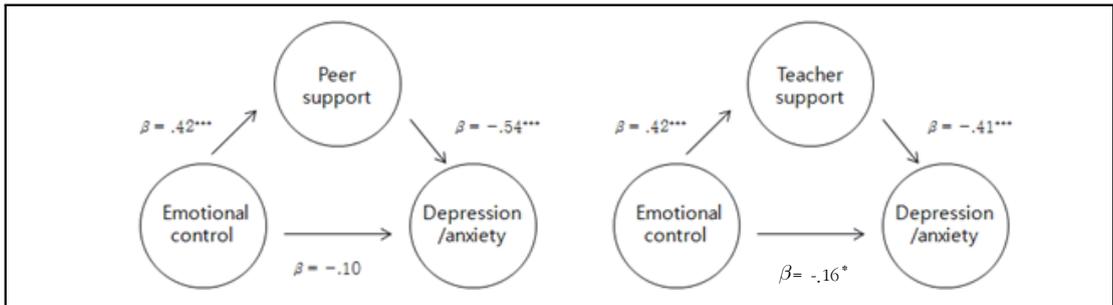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으로 나타났다($\beta=0.58, p<0.001$).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교사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30, p<0.001$). 그리고 이 때 독립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 두 번째 방정식보다($\beta=0.58, p<0.001$)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어($\beta=0.46, p<0.001$) 교사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교사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모형의 Z값은 4.00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3. 정서조절과 우울/불안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능력이 우울/불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역시 Baron &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순서와 동일하다. 정서조절과 우울/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정서조절을 투입하여 매개변수로 가정한 사회적 지지(친구지지, 교사지지)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서조절을 종속변수인 우울/불안에 회귀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정서조절과 매개변인인 사회적지지(친구지지, 교사지지)를 투입하여 우울/불안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정서조절과 우울/불안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Table 4, Fig. 2와 같다.

먼저, 정서조절과 우울/불안 간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정서조절이 매개변인인 친구지지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2$, $p<0.001$). 둘째, 독립변인인 정서조절이 종속변인인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33$, $p<0.001$).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정서조절이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친구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54$, $p<0.001$).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정서조절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번째 회귀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beta=-0.33$, $p<0.001$) 세 번째 방정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친구지지가 정서조절과 우울/불안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조절은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 매개변수인 친구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Z값이 1.96보다 크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하였는데 (Baron & Kenny 1986), 본 모형의 Z값은 5.87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조절과 우울/불안 간의 교사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첫째, 독립변인인 정서조절이 매개변인인 교사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2$, $p<0.001$). 둘째, 독립변인인 정서조절이 종속변수인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33$, $p<0.001$). 셋째, 정서조절이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교사지지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1$, $p<0.001$). 그리고 이 때 독립변인인 정서조절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 두 번째 방정식보다($\beta=-0.33$, $p<0.001$) 세 번째 방정식에서는 줄어들어($\beta=-0.16$, $p<0.001$) 교사지지가 정서조절과 우울/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조절은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교사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모형의 Z값은 5.30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관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의 영향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3~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19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이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서조절, 사회적 지지, 우울/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정적상관이, 정서조절, 친구지지, 교사지지 변인은 부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인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모형검증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2,3 단계)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 사회적 지지는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불안의 관계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Nho & Hong 2006; Choi 2009; Woo 2013)들의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이중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두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아동 뿐 아니라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타 문화를 존중하도록 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화 이해 교육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화스

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정서조절이 아동의 우울/불안과의 관계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과 우울의 부적상관의 결과를 나타내는 선행 연구(Kook 2010; Jang 2011; Kim 2013)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기는 인지능력과 더불어 정서표현 및 정서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서조절 능력이 확장 및 안정화 되는 결정적 시기이다. Shin(2003)의 연구 보고에서처럼 이 시기에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여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행동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일시적 불안이나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Cole et al. 1994).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정서조절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이 필요하며, 우울/불안이 높은 아동을 위해서는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언어적 공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행동이 필요한데,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언어적 공감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언어적 공감에 대해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물론 다문화가정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초기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아동의 성장과 함께 이에 적합한 발달적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언어교육과 함께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부모의 정서표현 능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Kim 2001; Kim 2003)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서표현 및 조절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요인 중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이 낮아진다는 Kang(2009), Choi(2009), Lee(2010)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은 그 생활 범위가 가족에서 학교로 확장되면서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로 대인관계를 확장시켜나가는 시기이다. 이때 의미 있는 타인인 친구와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이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높게 되고 이는 사회적 적응과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심리적 우울/불안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의 편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인식 전환을 위한 반 편견 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불안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모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매개하여 우울/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부분 매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을 줄이는 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다룬 Lee(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Cobb(1976)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 스스로가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 존중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정보라고 하였다. 즉 친구와 교사로부터 받은 애정과 관심은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자아정체성을 높여

출 수 있으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 들 중에서 사회적 편견과 따돌림 등의 정신적 고통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적 요인이 되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 역할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조절과 우울/불안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친구지지는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교사지지는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이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매개변수인 친구지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고, 교사지지를 통해서 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 하면 개인적 무력감,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우울/불안감이 높아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와 교사로부터 받은 애정과 관심이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서 조절과 우울/불안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친구지지의 경우 정서조절의 영향력을 제거할 만큼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령기 아동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모두 매개변인 역할을 나타냈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도 중요한 변인이지만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생활범위가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학령기 아동임을 감안 할 때 사회적 지원인 친구와 교사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해서는 우울/불안을 줄이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여서 바람직한 정서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

다. 이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위해 또래들과 편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교육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지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서조절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및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전체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조절 변인의 영향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각각 다루고 있고, 사회적 지지변인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변인에 대한 다양한 지지원과 지지유형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chenbach T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018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 Burlington, VT
- Asher S, Parker J(1989) Significance of peer relationship problem in childhood. In Schneider B, Attili G, Coie JD, 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 perspective. Kluwer: Dordrecht
- Barlow DH, Allen LB, Choate M(2004) Toward a unified treatment for emotional disorders. Behavior Therapy 35, 205-230
- Baron RM, Kenny DA(1986) The moder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 Personality Psychol 51, 1173-1182
- Cassel JC(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 J Epidemiol 104, 107-123
- Choi SW(2009)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focused on those in the areas of Daejeon and Chungcheung province. Master's Thesis, Chungman

- National University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 38, 300-314
- Cohen S, Will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 Bulletin* 98, 310-357
- Cole PM, Michel MK, Teti LO(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Res Child Develop* 59, 73-100
- Dubow EF, Ullman D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 Clin Child Psychol* 13, 99-125
- Grusec JE, Lytton H(1988) Social development. Springer-Verlag : NY
- Han MH(1995)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Doctoral'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Harker K(2001) Immigrant generation, assimilation,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oc Forces* 79, 969-1004
- Harris PL, Olthof T, Terwogt MM, Hardman CE(1987) Children's knowledge of the situations that provoke emotion. *Intern J Behavioral Develop* 10, 319-343
- Hong JJ(2004) A study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youth in Mongolian migrant workers' famil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ang CS(2011) The effects of disabled siblings-related stress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other siblings with no disabilities: Focusing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 Jeong HH, Chung SH(2007)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 *J Korean Home Assoc* 45(7), 93-103
- Kang SL(2009) The influence on the psychological-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born in Multi-cultural home concerned family and social support system. Master's Thesis, Uiduk University
- Kim HJ(2001)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KS(2003)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ntrollability and coping behavior. Doctoral's Thesis, Hongik University
- Kim MS(2003) The effect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on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 Kim YE(2013) The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s depression.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 Kim YM(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Ko YM(2009) The factors which affect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family of a foreign mother. Master's Thesis, Sungshin Woman's University
- Kook MK(2010)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ovacs M, Gastonis C, Paulauskas S, Richards C(1989)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V,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anxiety disorders. *Arch General Psych* 46, 776-782
- Lee EK(2008) The effects a cognitive-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emotion regulation skill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Chin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JE(2008)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eative personality on children's stress and stress coping behavior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Lee YY(2010) Impa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internalizing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 Lim YJ(2002)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40(1), 113-124
- Mazza A(2008)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Res* 16, 201-228
- Meadows SO(2007) Evidence of parallel pathways: gender similarity in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Social Forces* 85(3), 1143-1167
- Ministry of Education(2014) Education Statistics, the present cond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 [cited 2014 November]
- Moon YR(1996) Measurement study of emotion intelligence in Korea. Sejong Center: Seoul
- Nho CR, Hong JJ(2006)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Korean J Soc Child Welfare* 22, 127-159
- Park MS(2008)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adaptation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Cheonan city and Asan city.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 Park HY(2010) A study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focused on Korean children and mothers living in U.K. *Korean J Korea Youth Res Assoc* 18(8), 1-25
- Saarni C(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 55, 1504-1513
- Salovey P, Mayer J D(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Sluyter DJ,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 Basic Books:New York
- Scharfe E(2000) Development of emotional expression,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Baron, Paker DA, 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Jossey-Bas s: San-Fransisco
- Seo JH(2009) A study on school adaptation of a child from an international marriage.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Shin HJ(2007)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hin HS(200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to mother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Un SK(2010)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Doctoral'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Wethington E, Kessler RC(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 full life events. *J Health Soc Behavi* 27(1), 78-89
- Willson VL, Hughes JN(2006) Retention of hispanic/latino students in first grade; child, parent, teacher, school, and peer predictors. *J School Psychol* 44, 31-49
- Woo HJ(2013) A study on the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problems of multicultural children. *J Korean Home Econom Assoc* 51(2), 195-206
- Yang SY, Rhee JY, Lee JY(2012) Effects of stress-coping styles on depression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J Korea Contents Soc* 12(12), 810-822
- Yin CY (2010)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atic behaviors among pre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